

제1754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9월 8일

(음력 7월 16일) 금요일

## S프로젝트 특별법 추진

〈서남해안 개발계획〉

27일 시도민대책회의 결성…내달 與野대표 초청토론도

전남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남해안 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서남해안포럼(공동 대표 김정태·조우현·최태욱)은 오는 27일 광주에서 '서남해안발전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광주·전남 범 시도민대책회의' 결성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시도민대책회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인 200여명으로 꾸려지며 공동대표는 각각 주요 인사 10여명이 맡게 된다. 〈관련기사 4면〉

서남해안포럼측은 "중국 및 동남아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서남해안 신경제권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에 대한 지역민 전체의 열원을 모아나가기 위해 대책회의를 꾸리기로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시도민대책회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지역민 의지 결집, 정부·국회·언론·주민 대상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등에 적극 나서게 된다.

오는 10월 중순에는 광주에서 4당 대표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남해안포럼측이 마련 중인 특별법 초안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 설치 ▲핵심지역의 특별행정구역 지정 ▲투자자에 대한 주요 시설 운영권한 및 토지수용권 부여, 세금감면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남해안포럼 정찬용 국제위원장(NGO담당대사)은 최근 광

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대선 전인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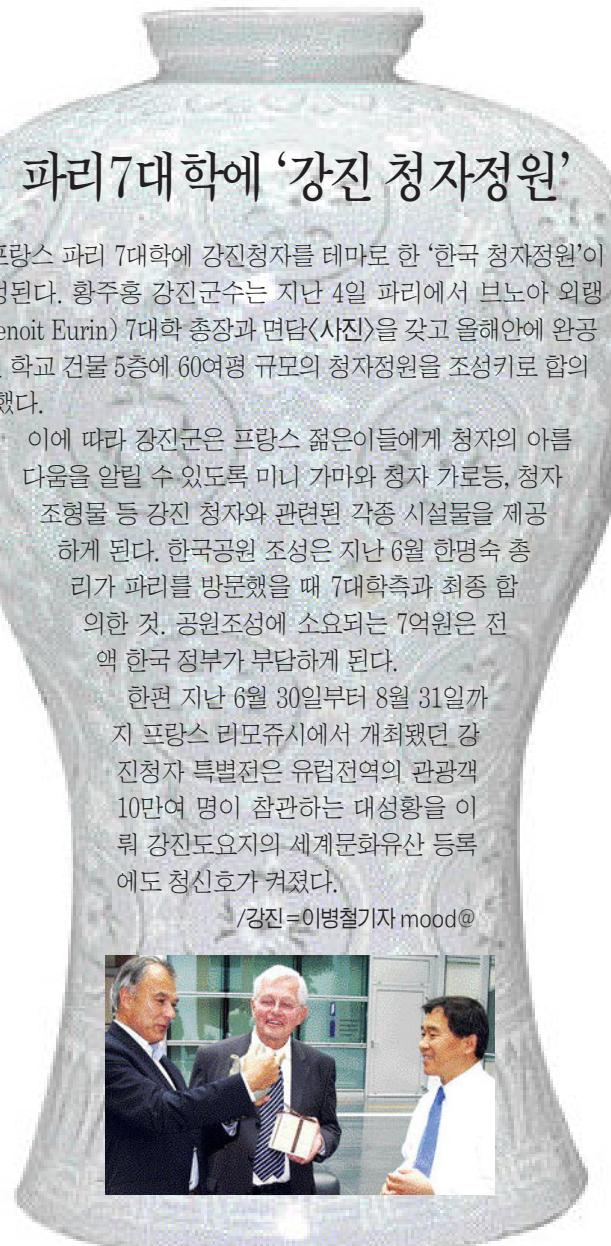
서남해안 개발계획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남해안포럼 조상철 팀장은 "현재 가입비 1만원을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이 1만여명에 이르며 후원금을 내는 회원도 200~3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개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그리스를 방문, 카라만리스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에게해 도서 개발 노하우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남해안 개발계획은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지역인 영암·해남 관광레저단지(3천만평)를 포함, 무안·복포 등 서남권 9천만평을 향후 20년동안 인구 150만명의 국제항공물류·과학R&D(연구·개발)·생명공학·레저타운으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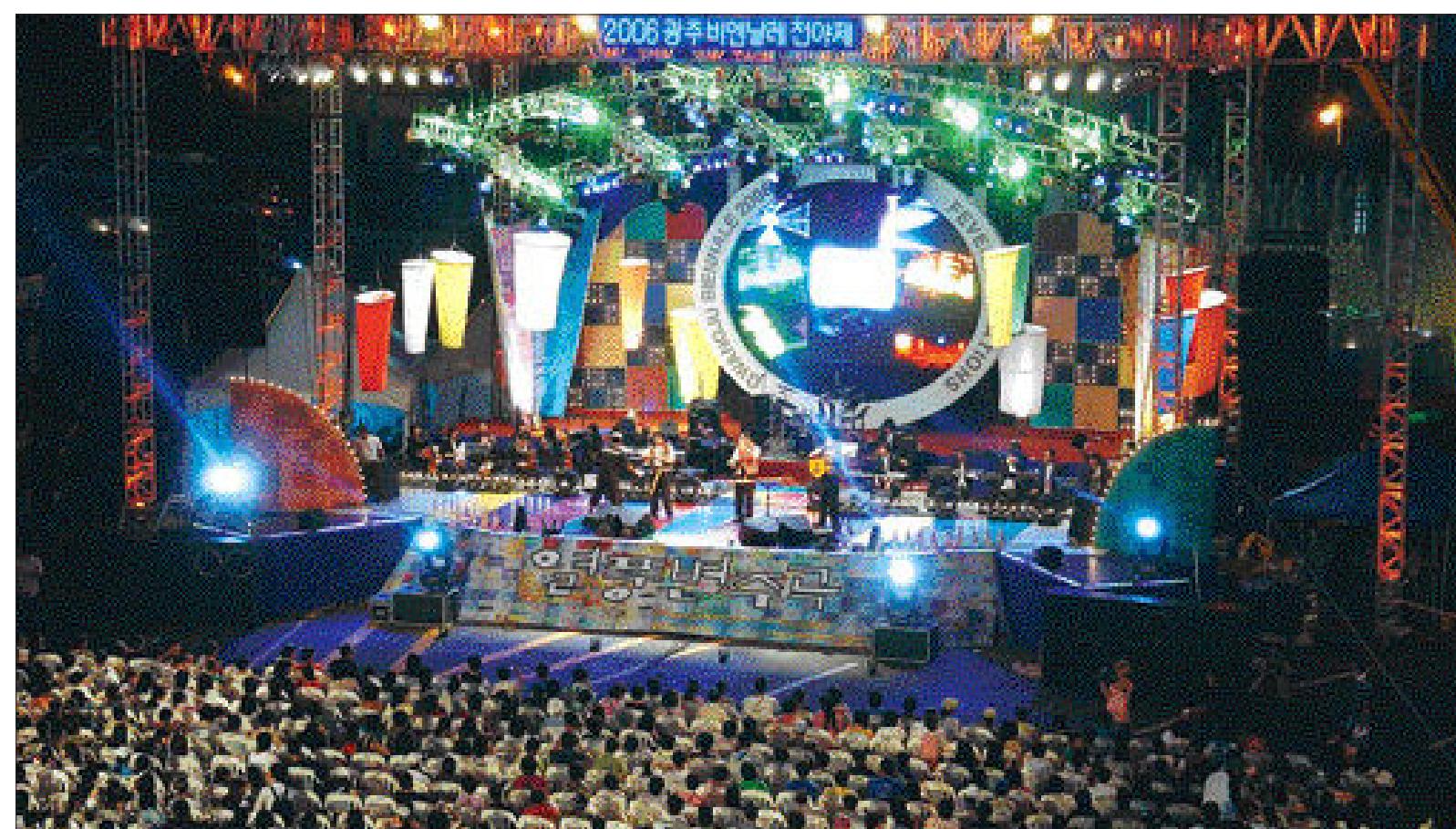
### 파리7대학에 '강진 청자정원'

프랑스 파리 7대학에 강진청자를 테마로 한 '한국 청자정원'이 조성된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4일 파리에서 베노아 외팽(Benoit Euriel) 7대학 총장과 면담(사진)을 갖고 올해안에 완공될 학교 건물 5층에 60여평 규모의 청자정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청자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미니 가마와 청자 기로등, 청자 조형물 등 강진 청자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공원 조성은 지난 6월 한명숙 총리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7대학측과 최종 합의한 것.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7억원은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프랑스 라로쥬시에서 개최됐던 강진청자 특별전은 유럽전역의 관광객 10만여 명이 참관하는 대성황을 이뤄 강진도요지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진=이병철기자 mood@



2006 광주비엔날레 전야제가 7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비엔날레 오늘 개막

'아시아 대표 미술축제' 65일 대장정…韓총리 등 1,800명 기념식

### 대상 中 송동·美 마이클 주 공동수상

▶ 관련기사 3·15면

‘광주의 열풍을 세계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미술축제인 2006 광주비엔날레가 8일 개막을 시작으로 6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열풍변주곡(Fever Variations)’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광주비엔날레 주전시관 일원에서 열리며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 재해석하기 위해 ‘아시아’를 전시의 기본축으로 정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중의공원 아의공연장과 주전시관 일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세계인들을 현대미술의 세계로 이끄는 축제 한마당을 펼친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박양우 문광부 차관, 민주당 한화갑 대표,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대사, 우테메타 바우어 2004 베를린비엔날레 총감독, 국내외 예술인 등 1천800여 명이 참가한다.

개막식 퍼포먼스 ‘열풍서곡’으로 막을 올리는 광주비엔날레에는 32개 국 127명의 작가가 참여, ‘첫장-뿌리’를 찾아서 : 아시아 이야기 펼쳐다’와 ‘마지막 장-길을 찾아서 :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89개 작품을 선보인다.

아시아를 기본 주제로 정한 이번 전시에는 한국작가 등 아시아 작가 57명이 참가해 동양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인들이 추구하는 미술세계를 선보인다.

한편 이번 비엔날레 대상은 송동(중국)의 ‘버릴 것 없는’과 마이클 주(미국)의 ‘보디 음풀스 캐터스’가 공



송동  
마이클 주

은 점수를 받았고, 마이클 주의 작품은 현재 존재하는 문화를 차용, 카메라를 이용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샀다”고 말했다.

후원상격인 광주은행상에는 임민욱(한국)의 ‘오리지널 라이브클럽’이, 한국국제교류재단상에는 노메다 &게르미나스 우르보나스(리투아니아)의 ‘프로-테스트 랩 아카이브’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개막식에 있을 예정이며 광주비엔날레대상에 3만달러, 광주은행상과 국제교류재단상에는 각각 5천달러씩 시상금이 수여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조수미 광주공연

9월 24일(월요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 (062)220-0541

아시아의 에너지! 현대미술과 새로운 만남... 6번째

## 2006 광주비엔날레\_ 열풍변주곡

2006. 9. 8. - 11. 11. 광주중의공원

